제24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해운대구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직할시해운대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 11.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송정해송·반여2동어린이집)
- 12.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
- 13. 구정질문의 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영숙 의	기원
	대표발의)(김경호·최은영·김상수·김백철·이상곤·박기훈·정순세·김혜진 의원 발의)	2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김경호·최은영·김성	상수
	·이상곤·박기훈·정순세·김혜진 의원 발의)	2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영숙 의원 [개표
	발의)(김경호·최은영·김상수·이상곤·박기훈·정순세·김혜진 의원 발의)	2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면
5.	부산직할시해운대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면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면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면
10).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사무 동의안(구청장 제출)	3면

11.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송정해송·반여2동어린이집)(구청장 제출) ············· 5	;면
12.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임말숙 의원 발의) 6	3면
13. 구정질문의 건(박기훈 의원) 8	3면
○5분자유발언(서정학·최은영·김혜진·문현신 의원) ···································	5면

○**의장 이명원** (10시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주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명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이명원 (10시 03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 사 결과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재무 운영 합당성 등 결산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일비를 상향 조정하고, 결산 검사 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산검사위원 수는 5명을 4명으로, 일비는 15만 원을 10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위원장을 대리하는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및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도록 위원장을 대리하는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직할시해운대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의장 이명원 (10시 07분)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 직할시해운대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 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데니스 오 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조영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조영진 의원입니다. 제241회 임 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관광시설 관리사업소의 수영강 시민공원 운영 관리 사무를 하천관리 전담 부서인 미래도시과로 통합하여 업무 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해운대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해운대구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경감해 주던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만료되어 폐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때 대외적인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 대상자의 적합 여부에 대해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서식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 원이하로 규정을 확대한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지방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12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한 구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항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파손 등의 이유로 철거된 데니스 오펜하임의 유작인 챔버(꽃의내부)를 재설치하여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문화 행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 및 지역 문화예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해당 작품의 설치를 관련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 사전 설명회 등을 거쳐 심도 있는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위원회의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조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0시 15분)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해운대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송정해송·반여2동어린이집)

○의장 이명원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송정해송·반여2동어린이집)을 상정합니다.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장 김정욱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김정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송정해송·반여2동어린이집)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부산광역시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자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김정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송정해송·반여2동어린이집)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

○의장 이명원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2항,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말숙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의원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좌1·3·4동 임말숙 의원입니다.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8.2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과 실거래 가격지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부동산 열기의 위축으로 건설 경기가 둔화되는 등 지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큰 하락세에 있는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규제라고 생각되며,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규제임에 따라 해운대구의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안 이유로 부산시의 주택 동향 분석을 보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작년 대비 29.48%가 감소되었고 매매가격지수 또한 전년 대비 3.7%나 감소하는 등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해운대구의 지역 경제가 날로 심각한 상태로 경기 둔화로 인해 시장경제가 위축되고 주택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 또한 위축되면서 구민의 삶이 더욱 쇠퇴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혹한 규제로생각됩니다.

오히려 주택 가격이나 공시지가가 높거나 매매가 잘 되고 있는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는 해제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와 탁상행정[卓上行政]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지역 경제 살리기와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춰 품질 높은 거주환경 제공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추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

해운대구 주민들은 서울 중심의 정책이 아닌 지방정부 중심으로 분권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국토교통부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방은 고사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 중심의 규제를 지역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 이상의 건설 경기 위축은 지역의 내수 하락으로 이어져 정책의 역효과가 발생하여 성장의 동력들이 모두 멈추는 나비효과를 가져와 부산은 성장의 날개를 잃어버리고 후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지난 3월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주고 우리 구를 비롯한 3개 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0.01% 올랐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은 23평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약 1억 원 이상이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전면적인 조사를 하여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주민들의 인구 유출이 날로 심각해져 지역 경제의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고 상가들은 문을 닫고 학원들은 인근 기장군이나 남구 방면으로 떠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4개 구·군을 해제하고 4개월 만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푼다는 것을 시기적으로 어렵다고만 답하지 말고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성의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기를 청원하며 부산시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41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하면서 지역의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역 발전의 모멘텀(momentum) 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주실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해운대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국토교통부는 여론의 귀를 막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를 단행하기 바란다.

하나, 부산시에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기바라며, 거주민 우선공급 기준을 원상태로 환원하기 바란다.

하나, 서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 수립을 통해 지방도 균형 있게 잘사는 희망정책 수립을 해 주기 바란다.

2019년 5월 1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임말숙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정질문의 건

○의장 이명원 (10시 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박기훈 의원이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형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주민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구의회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랑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훈 의원입니다.

해수욕장과 온천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성한 관광자원을 갖춘 우리 해운대구는 지난 1994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래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대한민국최고의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 도시가 갖춰야 할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의원은 그중에서도 해운대구의 도시공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심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이라 합니다.

3월 말 기준 해운대구가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 도시공원의 등록 수는 총 74개로 292만 6,562㎡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조성된 공원의 수는 51개소로서 71만 5,604㎡로 24% 가량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공원 수를 보시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동 13개소, 중동 9개소, 좌동 18개소, 송정동 4개소, 재송동 5개소, 반여동 15개소, 반송동 10 개소로서 앞에서와 같이 74개소의 공원이 292만 6,562㎡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 중 기 조성된 공원의 수는 우동 9개소, 중동 4개소, 좌동 17개소, 송정동 1개소, 재송동 4개소, 반여동 11개소, 반송동 5개소로 이처럼 기 조성된 공원의 수는 51개소로 면적으로는 우동이 60%, 중동이 7%, 좌동이 88%, 송정동이 2%, 재송동이 29%, 반여동이 8%, 반송동이 5%로 총 71만 5,604㎡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의 수는 그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포함하여 총 16 개소로서 전체 미조성 도시공원 수의 20%가 넘는 실정입니다.

이를 다시 지역적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 갑과 을 지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해운대구가 조성계획 중인 공원부지 총면적은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을 포함한 해운대 갑 지역이 44개소로서 187만 4,573㎡이고 그리고 재송, 반여, 반송을 포함해 해운대 을 지역은 30개소로서 176만 7,593㎡로 94% 비슷한 면적의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성된 공원의 현황을 보시면 해운대 갑 지역은 31개소로서 59만 1,960㎡인 반면해운대 을 지역은 20개소로서 12만 3,644㎡로 갑 지역이 을 지역의 면적에 비해 5배가량, 80% 더많이 조성되고 있고, 개소로는 36% 더 많이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운대 갑 지역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특구로서 도시공원의 필요성이나 수요가 높음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해운대 을 지역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해운대구의 예산 편성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좌동의 대천공원은 장산 등산로 초입에 위치하여 전국의 수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해운대를 대표하는 도시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재송, 반여, 반송지역은 어떻습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공원이 있습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멋진 도시공원이 조성되기를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어린아이, 청소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우리 곁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관광특구 안에 지정돼 있음에도 소외되고 있는 송정동 지역은 어떠하십니까? 어린이공원인 솔바람공원만이 조성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재송, 반여, 반송의 지역뿐만 아니라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저희 해운대구 주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산 편성 중에 해운대 을 지역이 복지 예산 비중이 높다는 이유는 어느 근거 사항입니까?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와 동반된 도시공원의 부족과 노인 인구 비율이 많다고 해서 복지 예산이 많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해운대를 지키고 해운대를 만들고 살아오신 장본인들은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존경하여야 하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대로 공원에 대한 조성 및 예산에 편차가 생길 경우 향후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시행은 자칫 해운대구 지역의 균형 발전에 저해되며, 공원이 낙후된 지역은 더 낙후되며 소외된 지역은 더욱더 소외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지역의 도시공원 조성과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해운 대구가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공원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역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 계획과 실제 조성된 공원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둘째, 해운대구의 장기미집행 공원과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 일몰제에 대해 해운대구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셋째, 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형태의 도시공원전략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해운대구의 도시공원 시설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몇 년 치의 구 예산을 몽땅 쏟아부어야 할 만큼 이 이상 더 크고 중요한 사업도 없으리라 생각합

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요?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원

박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홍순헌

예.

○의장 이명원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순헌

우선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임말숙 부의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우리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열정으로 우리 구가 잘 경영되고 또 잘 감시되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구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박기훈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이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의 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대해서 갑과 을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갑과 을로 표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급적이면 지역 표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원을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166개가 있습니다. 이 166개의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를 다 생각해 보면 거의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우선 도로 시설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6개의 시설 중에 우선 급한 도로 시설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용역 중간보고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당장 내년에 일몰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서 21개 정도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1,5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1,500억 원을 저희들이 과연 내년 7월 일몰에 맞춰서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아주 큰 난제이면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부산시와 또 국토교통부의 어떤 결단을 저희들은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혹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원으로 돌아가면 우리 관내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공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시가 결정을 하고 부산시가 조성을 해야 하는 공원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송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반송근린공원이 해당되겠고 또 석대의 쓰레기매립장에 조성 중인 해운대수목원이 바로 그와 같은 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반여4동으로 넘어오면 명장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관내에는 부산시가 결정을 한 그리고 조성을 해야 할 공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

렸듯이 22개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보통 부산시가 조성하는 공원은 목적상 수변공원 또는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 그와 같은 22개의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가 결정을 하고 또 우리 해운대구가 조성을 해야 될 공원이 52개가 있습니다. 이 52개는 박기훈 의원님의 지역구인 재송동에 있는 별천 지공원이라든지, 또 반여동에 있는 초록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들이 결국 52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조성해야 되는 공원은 소공원이라고 하는 명칭과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목적으로 조성이 된다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4개의 공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이 공원을 놓고 실제로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한번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재송, 반여, 반송지역과 우동, 중동, 그리고 좌동, 송정지역과 숫자적으로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면적 대비 계산을 해 보면 실제로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 현재 부산시가 관리해야 될 21개소에 대해서는 조성률이 2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21%에 불과한 것과 우리 해운대구가 결정한 52개소에 대해서는 80% 조성이 현재 되어 있는 그 런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조성을 해야 될 공원들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대규모 공원들입니다. 그중에서 의원님이 처음 질문을 하셨던 반송과 반여, 재송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공원들을 보면 더더욱 면적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약 20만 평에 해당되는 석대지역의 해운대수목원의 경우에 현재 1단계 사업은 지난 2017년 말에 완료가 되었고, 2018년도에 부족한 예산 112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2단계 사업입니다. 그 2단계 사업은 부산시에서 2022년도 12월까지는 준공을 할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관계공무원과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면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반송지역의 반송근린공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결과에 의해서 조성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 반송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조 성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공원이라는 것을 잘 아시 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공원 중의 하나가 명장공원입니다. 이 명장공원은 아시다시피 여기도 면적이 큽니다. 20만 평 정도 되는 공원인데 이 명장공원의 특성은 우리 해운대구와 동래구가 지리적으로 겹쳐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명장동이 일부 포함이 돼 있고 우리 해운대구가 대부분인데 90%가 해운대구 반여4동, 10%가 동래구 명장동의 경계 관할에 있습니다. 이 공원은 당초에 사유지가 거의 90%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공원을 우리 시가 또는 우리 구가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민간공원특례법을 적용해서 2017년부터 민간 공모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해당 업체가 정해져서 그 업체가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는 부산시와 그리고 민간업체가 서로 협약을 맺고 그 실시설계 계획 협약이 맺어지고 나면 이제우리 구청과 그리고 부산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데 공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90%가 우리 해운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박기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체 반여, 반송, 재송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비율은 아마 앞으로 우동, 중동, 좌동, 송정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이 내년에는 반대 질의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저희들은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장공원은 2023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민간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석대에 있는 해운대수목원은 202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최 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반송근린공원은 올 12월까지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조성을 완료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보유를 하고 또 앞으로 조성을 해야 될 그런 공원 52개소에 대해서는 조성률이 말씀드렸던 대로 평균 80%에 해당됩니다마는 특히 걱정하고 계시는 반송, 반여, 재송을 기준으로 보면 조성률이 85.3%입니다. 그리고 우동, 중동, 좌동, 송정을 계산해 보면 76.6%밖에만 된다는 사실은 우리 박기훈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우리 구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을 아직 완전히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20%에 대해서는 공원 개소로 따지면 전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 중에 1개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송정에 가면 양묘장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필요할 때 수목을 재배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양묘장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묘장은 내년에 일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100% 토지를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아 있는 7개소에 대해서는 조성이 필요한데 일몰에 다행히 해당되지 않는 그런 구역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 들어 있느냐 하면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라든지, 또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구역 안에 들어 있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공원과 앞서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이나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서 그게 시작이 되면 이 사업은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일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미제, 아직 처리하지 못하는 이 공원 8개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인 부산시가 결정하고 또 앞으로 조성을 해야 될 이 공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박기훈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 모두가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에 다가올 장 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대응 방법으로 저 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97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해운대구에도 1개소에 현재 보상 책정이 되고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원이 바로 거의 중동에 해당되는 청사포공원이 그렇습니다. 청사포공원에 예산이 136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현재 보상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방안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토지은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부산시가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임차공원 제도를 부산시에서 한번 도입을 하려고 연구,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전에 명장공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민간특례법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유일하게 부산시 전역에 이와 같은 근린공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대구의 명장공원만 민간 특례 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 부산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 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66개의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공원에 적용 됐던 이런 사례.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혹시 적용 가능할지 여부를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도시공원전략추진위원회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은 적극 찬성하고 필요 하다면 언제든지 구성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공원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 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박기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반송, 반여, 재송지역을 기준으로 저희들은 대규모 힐링 숲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운대 숲체원'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현재 산림청과 적극적인 관계 개선. 그 리고 또 산림청과 협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행히 이곳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풍산 금속이라고 하는 그린벨트에 싸여서 그동안 거의 40년 동안이나 민간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장산자락이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제2센텀이 조성되는 곳과 바로 연접해서 이 공간을 앞으로 더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면 적이 40만 평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 땅이 다행히 사유지가 아닌 전체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가 있으시다면 우리 구 관계자를 포함해서 구청장인 저는 이 숲체원을 꼭 성공시켜서 반송과 반여, 그리고 재송을 포함 한 우리 구 전역에 바로 이와 같은 정서를 함양하고 또 힐링이 가능한 이런 숲체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교량을 만든다든지. 터널을 만들어서 이 물리적 공간에 의해서 하드 웨어적인 것 외에 해운대구민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정신세계를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공원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도 하겠으며, 또 앞서 제가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특히 좌동 지역에 조성률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26년 전 에 우리 해운대구에 있어서 좌동의 경우는 신시가지라고 결정이 되었고 신시가지 결정 당시에 여기 에는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이 포함되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의 의지와는 별개로 그 당시에 부산시 건설 본부에서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는 조성률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아졌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해운대구민 전체가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미래

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이 충만한,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내년에 다가올 일몰에 대비한 그런 정책을 조금 더 변함없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박기훈 의원님,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 의원님모두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좋은 질문과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원

홍순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님, 혹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중복되는 것 말고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없습니다.

○의장 이명원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은데... 박기훈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박기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명원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의원

답변해 주신 홍순헌 구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 전문가답게 오늘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 공원 조성률을 보면 말입니다. 재송, 반여, 반송이 85.3%가 많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마는 현실에 맞고, 주민의 피부에 맞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공원과 공원일몰제시행에 따른 추후 공원 조성을 보면 해운대수목공원과 명장공원이 조성 진행 중에 있으나 해운대공원, 동백공원, 동래해운대공원, 장지공원 등 우동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또한 송정동의 윤슬공원도 추진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해운대구 공원 실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소외된 공원, 소외된 지역, 그리고 무엇보다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물 샐 틈 없 이 행정의 그물망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 경과 깨끗한 도시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해운대구의 균형 발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홍순헌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원

박기훈 의원님, 추가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이 필요합니까?

(**)박기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됐습니다.)

○의장 이명원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박기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명원

혹시 홍순헌 구청장님, 추가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시면...

○구청장 홍순헌

없습니다.

○의장 이명원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멋진 구정질문과 멋진 답변해 주신 박기훈 의원, 홍순헌 구청장께 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서정학·최은영·김혜진·문현신 의원)

○의장 이명원 (11시 01분)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서정학 의원, 최은영 의원, 김혜진 의원, 문현신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서정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의원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임말숙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도시 건설에 수고하시는 홍 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서정학 의원입니다.

얼마 전 KBS 방송을 통해 '산불은 나지만 큰 불은 없다'는 산림 선진국 핀란드의 효율적인 진화 시스템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이 지날 수 있을 만큼 넓게 만든 산림도로는 불이 나면 소 방차 진입로가 됩니다. 숲 속 어느 지점에서든 300~400m만 가면 이 같은 산림도로를 만날 수 있는 데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그만큼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숲 속까지 그물망처럼 촘촘히 놓인 산림도로로 인해 숲은 평균 1.5㎞ 미만의 작은 단위로 나 뉘다 보니 큰 불이 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초 벌목과 목재 운반을 위해 만들어진 이 산림도로에는 무기물만 있어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지 대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가재난사태까지 부른 강원도 산불이나 반송 운봉산 산불을 보면서 본 의원은 임도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송 운봉산 산불 진화에 수고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1,000여 명의 공무원 가족과 홍순헌 구청장님, 이명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9월 1일 임시회기 때 해운대수목원과 운봉마을 간 임도 조성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운봉산 산불 발생 시 임도가 설치되었다면 훨씬 더 빠른 조기 진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석대동 옛 쓰레기매립장 62만 8,000㎡ 부지에는 해운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대지역에 들어서는 해운대수목원과 반송2동 운봉마을로 이어지는 약 3km 가량의 산길은 평소에도 지역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해운대수목원과 연계하여 임도를 조성한다면 지역주민과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웰빙 산책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산림이 민가와 인접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반복되고 있는 산불 위험으로부터 소

방차 진입 시설이 없는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최근 10여 년간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달맞이길 관광테마도로, 문탠 로드(Moontan Road), 영화의 거리, 수영강 시민공원 산책로 등 많은 산책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반송지역에도 석대생태 하천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석대천과 축을 이루는 임도형 산책로가 추가 조성된다면 반송 주민의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산불 피해로부터 산림을 지키고 여기에 더해 구민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임도 조성 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반송지역 발전과 반송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순헌 구청장님께 본 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 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서정학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주민의 니즈(needs)에 답이 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미래도시'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좌2동, 중2동, 송정동 더불어민주당 최은 영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올해 첫 국내 교육 연수지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주민자치회, 도 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청소년문화시설과 아동의 돌봄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의 운영 실태 등을 보고 들음으로써 종이 자료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생생한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빌딩숲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야말로 마을은 없고 도시만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컸습니다마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우리 해운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주민 중심의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2박 3일간 다녀온 국내 교육 연수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주민의 니즈에 맞는 정치, 행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지난 240회 임시회에서 가칭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시설명, 층별 구성부터 아이디어를 모으고 청소년과 아동이 안전하게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온디맨드(on-demand)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타지자체에서 대상자가 잘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시행착오 사례들을 수집함으로써 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자와 실무자가 함께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을 꼭 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둘째, 공공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프레임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질 내용물을 바꿀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리뉴얼(renewal)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 빈도가 낮거나 대체 가능한 공간은 과감히 주민과 공유해야 합니다. 퇴근 후에 주민은 회의할 만한 공간 하나 없어 동네 커피숍을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에게 공간이 마련되면 이웃이 모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우리 마을의 현안을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더 이상 점유하고 있는 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구의회와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미 서울의 구 단위 지자체들은 모범 사례를 만들어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현대사회를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인문학을 통한 가치관 적립과 인간성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독서가 필수적 요소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마을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좋고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 주민의 니즈가있는 곳에 늘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는 해운대도서관, 우동 도서관, 반여 인문학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등 특색 있는 도서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수요자 중심으로 개방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꼭 필요합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이 아닌 주민 중심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운대구 부산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해운대는 부산의 중심입니다. 뻬까뻔쩍한 빌딩 못지않게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1회 타종)

인식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제 발언은 무엇을 어디에 새로이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니즈에 맞게 기존의 시설에 내용을 입히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차원의 마을 공동체가 아닌 진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가 조금씩 뿌리를 내려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최은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미래도시'해운대를 위해 애쓰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맞이고개 벚꽃 길의 야간 활용을 위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맞이길은 해운대 미포에서부터 송정해수욕장까지 8km 정도의 오솔길로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이며 대한8경의 하나입니다.

이 멋진 달맞이길은 또한 봄이 되면 부산에서 꼭 가봐야 할 벚꽃 길로 유명합니다. 본 의원은 수 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달맞이길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자리에서 이 벚꽃 길의 활용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사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달맞이언덕 벚꽃 길은 3월 말, 4월 초가 되면 사람들이 삼삼오오[三三五五] 짝을 지어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기 위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현재 해운대 달맞이고개의 벚꽃 길은 야간에는 자료와 같이 어두워 초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산책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여기는 해운대 달맞이길에서 가장 밝은 곳인 달맞이길 주차장과 해월정 옆 공영주차장입니다. 가로등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가장 밝은 지역입니다. 이 달맞이언덕뿐만 아니라 해마루를 지나 송정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멋진 벚꽃터널이 있으나 이같이 어두워 보행자들이 저녁에 다니기는 약간 무섭기도 하고 또 차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변이 벚꽃터널인지를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여기가 해마루공원이고 해마루에서 송정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밤에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리고 이곳은 해마루에서 송정으로 내려가는 길목의 주차 공간인데 지금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니면 여기는 깜깜해서 전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경주의 보문단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보문호수입니다. 야간 조명을 활용하여 벚꽃이 피는 3~4월에는 낮뿐이 아니라 오히려 밤에 더 관광객이 붐빕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바닥에 설치된 조명을 통해 벚꽃을 향해 쏘아줌으로써 화려함은 물론이거니와 밤에 더욱더 벚꽃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여기는 보문CC 옆의 도로변입니다. 꽤 늦은 저녁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인생 사진을 찍기위해 많은 사람들과 차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자료 사진을 찍기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곳은 경주의 가장 유명한 밤 벚꽃놀이 장소인 흥무로 김유신 장군 벚나무 가로수 길입니다. 이길은 야간 경관조명이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 벚꽃 길 명소로 알려져 연인 및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수집을 위해 찾아갔던 그날도 인산인해[人山人海]로 발 디딜 틈이 없고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역시 조명을 벚꽃을 향해 쏘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먹거리 장터도 활성화돼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 올해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약 800여 개의 경관조명을 정비하여 점등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말로만 달맞이고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할 것이 아니라...

(1회 타종)

가지고 있는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맞이 벚꽃의 야간 활용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김혜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1동, 중1동 문현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방제사업 중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 예산의 합리적 지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해파리 방제를 위해 우선 해수욕장 경계 수역 수중에 백사 장 길이에 해당하는 1.5km 길이로 바닥 쪽까지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여 해파리의 유입 자체를 차 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퇴치 용선을 임차하여 차단망 바깥 주변에 부유하는 해파리를 뜰채 로 걷어내는 작업이 병행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여기에서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 예산 부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7,2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는데 차후에 국비 2,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총 9,200만 원이 되었고 그것을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용선 한 척당임차 비용이 20만 원, 2018년도 역시 같은 이유로 2017년 사용액 대비 9,000만 원을 전액 구비로편성, 하지만 역시 국비 2,000만 원이 지원돼 총 1억 1,075만 원을 사용합니다. 이때 용선 한 척당임차 비용이 25만 원, 금년 2019년도에도 국비 지원 불투명을 이유로 1억 800만 원을 전액 구비로편성하였는데 지난 추경 때 국비 2,0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1억 2,8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올해 용선 한 척당임차 비용은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해마다 5만 원씩 오르는 용선 계약비와 점층적으로 증가하는 예산 책정 자체만을 두고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파리 개체수 증가 등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수욕장 내로 해파리가 어떻게 진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파리가 평소에는 이 차단망 안으로 진입을 못 합니다. 하지만 만조의 전후 밀물 시간에 어민들이 '갱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때에 조류를 따라 그물을 넘어서 해수욕장 내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해파리 제거는 조류 시작 지점인 미포쪽에서 제거하는 것이 쉽습니다. 해수욕장 쪽으로 진입할수록 넓게 확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해서 평소에는 정기 순찰 운항을 하고 만조 전후 밀물 시간대에 미포 쪽부터 뜰채 작업을 병행하면 될것입니다. 실제 작년에 총 23척의 92일간의 선박작업 일지에서도 보면 작업 내용이 전혀 없거나 부유 쓰레기 수거가 거의 전부입니다. 건져 올린 해파리 개체 건수는 극히 저조합니다. 선박 한 척이면 효과적인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다대포해수욕장의 경우 최근 3년간 해파리 방제 사업으로 자체 편성된 구비는 따로 없으

며, 2017년과 2018년 해파리주의보 발령 시 선박 임차비 및 인건비 사용의 명목으로 연 1,000만 원씩의 국비 지원이 있었으나 2년 연속 전액 반납했습니다. 해파리 차단망은 미설치이고 어업지도선한 척이 해파리 퇴치 작업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작년 해파리 쏘임 피해 건수는 0건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역시 최근 3년 동안 책정된 금액은 따로 없으며, 해파리 차단망은 미설치이고 민간 수상 구조선이 수시로 뜰채 작업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작년 해파리 쏘임 피해 접수건수는 0건입니다.

그리고 울주 진하해수욕장, 거제 와현 등 해파리 차단망이 설치된 타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용선 예산 없이 안전 관리요원이나 민간 수상구조대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해파리 차단망이 설치돼 있는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심지어 하루에 8척이 근무한 날도 있습니다. 선박 한 척당 계약 조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인건비와 유류비 포함 일 임차 비용이 25만 원입니다. 10일간 계약을 한 선박이 그중 7일을 태풍 등으로 인해 항구 대기 상태였더라도...

(1회 타종)

10일간의 계약 금액 25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항하지 않은 날은 임차비 전액이 아닌 비 운항에 합당한 임차비를 따로 책정하여 지급할 것과 선박 수를 대폭 줄여 합리적으로 조정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송정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용선 임차 사업 자체를 삭감하고 어업지도선의 활용을 제안 드려보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원

문현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와 수시로 추진 사항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 18인

이명원 임말숙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청 구 장 홍순헌 부 구 청 장 강태기 행 정 지 원 국 장 이창헌 관 광 경 제 국 장 백종기 주 민 복 지 국 장 김용전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보 건 소 조봉수 장

○의회직원

전 손혜숙 문 위 원 의 사 팀 장 박현주 무 사 직 워 박진우 사 무 직 원 김숙경 속 기 Λŀ 오미선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2019년 5월 9일 원영숙 의원 대표발의 외 8명 의원 발의)

· 발의자 / 원영숙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이상곤 박기훈 정순세 김혜진 (이상 1건 2019년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2019년 5월 9일 원영숙 의원 대표발의 외 7명 의원 발의)

·발의자 / 원영숙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박기훈 정순세 김혜진

(이상 1건 2019년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2019년 5월 9일 원영숙 의원 대표발의 외 7명 의원 발의)

·발의자 / 원영숙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박기훈 정순세 김혜진

(이상 1건 2019년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

(이상 1건 2019년 5월 13일 임말숙 의원 발의)

- · 발의자 / 임말숙
- ·찬성자 / 장성철 김정욱 김상수 김경호 김혜진 박기훈 김성군 김백철 문현신 원영숙 이상곤 최은영 정순세

2. 심사보고서 접수

소 관	안 건 명	제출일	심사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13.	수정가결
의회운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13.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13.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3.	원안가결
	부산직할시해운대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 한조례 폐지조례안	5. 13.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3.	원안가결
기획관광행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3.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3.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3.	원안가결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5. 13.	원안가결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송정해송어린이집, 반여2동어린이집)	5. 13.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안	5. 13.	보 류
주민도시보건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힐스테이트위브어린이집)(가칭)	5. 13.	보 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3.	보 류

3. 구정질문 답변요지서 접수

질문자	접수일	안 건 명	답변자
박기훈	5. 13.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태 및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구청장 관광경제국장

4. 5분자유발언 신청

신청자	신청일	발 언 요 지	
서정학	5. 8.	임도가 산림을 살린다	
최은영	5. 13.	주민의 니즈에 답이 있다	
김혜진	5. 13.	달맞이고개 벚꽃 길 야간활용을 위한 제언	
문현신	5. 13.	혈세 먹는 해파리	

5. 의원연구단체 등록

등록일	대표의원	회원수	단체명
5. 13.	임말숙	15명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 전략 연구회

6. 기타 의정활동

일 시	활 동 내 용		
5. 8. 심폐소생술 교육 및 반송119안전센터 격려			
5 0	현장방문(기획관광행정위원회) - 기술교육원 등 6개소		
5. 9.	현장방문(주민도시보건위원회) - 보훈회관		
5. 10.	현장방문(기획관광행정위원회) - 죽도공원 등 3개소		